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글쓰기 |
|  | **학번** | : | 202334-153942 |
|  | **성명** | : | 임준희 |
|  | **연락처** | : | 010-9620-354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 이하 작성

좋은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의도가 분명하고 독자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은 충실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의 짜임과 정확한 표현으로 써야한다.

1) 글의 목적과 독자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스스로 이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글쓰기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글의 양식과 문체,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목적이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지,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자신이 느낀 것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인지를 파악하고 정해야 한다. 또한 글을 읽을 대상이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글을 읽을 대상에 따라 글의 어휘와 문체, 내용의 수준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의 연령대, 교육 수준, 독서 능력, 독자의 관심 영역과 독서의 이유, 문화적 배경과 이념적 경향 등을 고려해야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글의 의도를 잘 전달 할 수 있을지가 글쓰기의 중요한 요건이다.

2) 내용의 충실함과 정확성

사실을 전달하는 글은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사실과 어긋난 글, 해석 과정에서 곡해의 소지가 있는 글, 부실한 내용을 포장한 글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용을 신뢰 할 수 있도록 정확성과 적절성도 중요하다. 실용적인 글에는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통계 수치 등의 자료를 요한다면 최근의 자료까지 점검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 했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인용한 글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글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 글의 표현

글을 쓸 때는 적절한 단어 선택도 중요하다. 글을 쓰는 목적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면 특히 개념어의 사용에 유의 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해 두는 것이 글을 해석할 때 오해가 없다. 또한 용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여 문맥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한자나 영어 등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 선택된 어휘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 또한 단어 선택 이상으로 중요하다. 되도록 동의어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무의미한 표현, 잉여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상투적 표현을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은 길이가 적당하고 전달 내용이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하지만 문장이 길거나 모호한 것은 일시적이고 불가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이 길어지면 쉼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글의 짜임

좋은 글은 통일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는 글이다. 글의 통일성은 모든 부분이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며, 표현 의도에 맞는 글의 구성법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배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글의 형식이나 필자의 관점이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의 부족함 없이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해석이 동반 되어야 완결성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은 바로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을 읽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글을 쓰기 전의 가장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며, 글의 목적과 독자를 파악하지 않으면 글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는 목적과 대상을 파악한다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지? 이 내용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까?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라는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1) ‘느라고’와 ‘노라고’

위는 둘 다 연결어미지만 쓰임새는 전혀 다르다. ‘-느라고’는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족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고,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달려오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 꾸미노라고 꾸몄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다.

(2) ‘-데’와 ‘-대’

위는 둘 다 문장의 끝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다. ‘-데’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나타내고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언니 어제 엄마 머리 봤는데 파마했데 – 나도 친구한테 들은 건데 내일 비 온대

(3) ‘알맞은’과 ‘알맞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 어간에만 결합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이 맞는 표현이다. ‘알맞는’이라는 표현이 써진 경우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맞다’라는 동사의 영향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딱 알맞은 걸로 골라줘

(4) ‘어떻게’와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고 ‘어떻게’는 부사로 쓰이는 것으로 서술어 자리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 늦잠 자서 지금 일어났어 어떡해

(5) ‘것’과 ‘거’

의존명사 ‘것’은 구어에서 ‘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것’을 문장에서 ‘거’로 쓴다고 해서 표기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는 구어에서만 사용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화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 외에는 ‘것’을 ‘거’로 쓰면 안된다.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아 – “아니 이거 봐보라니까?”

(1가) ‘적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크기 등이 비교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나이, 말수, 수입, 등은 적은 것이며, 키, 몸집, 체구 등은 작은 것이다.

동생 과자보다 내 과자가 더 적다. – 동생 보다 내 키가 더 작다.

(1라) ‘틀리다’는 그르거나 어긋나다 라는 뜻이고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다.

원래 잘 풀어왔는데 이 문제는 답을 틀렸다. – 너와 나는 답이 달라.

(2나) ‘전격적’은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의 새로운 시즌이 오늘 4년만에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다.

(3나) ‘주의가 산만하다’를 ‘주위가 산만하다는’ 표현으로 잘 못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주의’는 ‘어떤 한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이라는 뜻이고 ‘주위’는 ‘어떤 것의 환경’ 이라는 뜻인데 둘의 발음이 비슷하고 한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기웃거리게 된다는 점과 유사하여 ‘주위’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다.

명훈이의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을 진행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주위의 친구들을 시켜 제재했다.

(3라) ‘제치다’는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 라는 뜻인데 ‘제끼다’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끼다’는 없는 표현이다.

3년 동안 2등만 하던 내가 드디어 너를 제치고 1등을 했다.

(4가) 흔히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장본인’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장본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지.

(4다) 모듬회, 해물모듬 처럼 ‘모둠’인데 ‘모듬’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모듬의 동사 ‘모으다’라는 뜻을 보고 혼동한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모둠’이 작은 규모로 묶다는 것 이외에 일부 음식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모 가게의 인기 메뉴는 해물 모둠과 모둠 회이다.

(4라) ‘탓’은 사전에서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이라는 뜻의 ‘덕분’을 쓰는 것이 옳다.

비가 계속 내린 탓에 집에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5나) ‘수여’는 ‘증서, 상장, 훈장 등을 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여하다는 맞는 표현이지만, ‘수여받다’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차례로 상장을 수여하셨다.

(10다) ‘좋은 호평’은 ‘좋다’와 ‘호평’의 ‘좋은 평가’라는 뜻이 중복된 표현으로 알맞지 않다.

이번 드라마는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